

‘델타 변이’ 공포에 백신부족 불안감… 접종예약 폭주

신규확진자 2주연속 1000명 넘어
백신 수급문제로 접종계획 변경 찾아
세분화 예약에도 접속자 몰려 과부하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백신 부족에 대한 공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1000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 계획이 지속적으로 바뀌며 불안감은 더욱 확산됐다.

◆델타 변이 ‘우세종’ 됐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1252명이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델타형이 951명으로 7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국내 감염 사례의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47.1%) 중 델타 변이 검출률은 33.9%로 직전 주 23.3%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델타 변이가 국내 변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며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 계획이 계속 변경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일 26일부터 시작되



0시 기준 1차 백신 접종률이 31.7%로 집계된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체육관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는 50대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모더나뿐 아니라 화이자 백신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접종 마감일도 기존 8월 25일에서 28일로 3일 늦췄다. 7월 셋째 주로 예정됐던 모더나 백신 공급이 마지막 주로 늦춰지면서 접종 계획을 급히 변경한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7월과 8월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 총량은 당초 계획 대비 변동이 없다”며 “다만 7월말에 몰린 백신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50대 접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같은 계열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접종 계획의 갑작스러운 변동은 그동안 수차례 이어져왔다.

앞서 정부는 배정된 물량 소진 이유로 55~59세 백신 접종 예약을 중단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시작했고, 50~54세 접종 기간은 일주일 늦췄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1차로 맞은 76만여명 역시 AZ 백신 물량 부족으로 2차에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받는다.

◆백신 잡기에 혈안된 사람들

백신 물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은 접

종 사전예약 폭주로 이어졌고, 과부하로 인한 접속 장애도 계속되고 있다.

전일 오후 8시 53~54세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지만, 개통 직후 접속자가 몰리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며 2시간 예약이 중단됐다. 질병관리청은 클라우드 서버를 긴급 증설하고 오후 10시 다시 예약을 재개했지만, 예약은 원활하지 않았다. 50~52세의 사전 예약은 이날 오후 8시 시작되면서 또 한번의 과부하가 우려된다.

추진단은 “오는 24일까지 사전예약 기간에는 조기 마감없이 예약을 할 수

있다”며 “예약 시스템 개통 직후에는 많은 사람이 일시에 접속해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개통 직후를 피해 예약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4차 대유행 속에 백신 부족 우려까지 겹치며, 사람들은 이미 백신 잡기에 혈안이 된 상태다.

출장이 잦은 50대 직장인 A씨는 “잔여 백신 신청은 계속 실패하고, 내 차례가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라며 “이제 겨우 차례가 됐는데 백신 물량이 언제 떨어지고, 예약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토로했다.

접종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1900만명에 달하는 20~40대 나머지 연령층의 불안감도 커졌다. 잔여백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는 상태다.

40대 직장인 B씨는 “나머지는 연령 구분 없다고 들었는데 그 많은 인원을 서버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8월말쯤 백신 접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지경이면 최후순위로 40대는 9월에도 접종이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 인니서 긴급사용 승인

셀트리온, 해외 첫 승인 사례
델타 변이 중화능력 등 확인

셀트리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사진)’가 해외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로부터 렉키로나에 대한 긴급사용승인(EUA)을 획득했다고 20

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식약처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성인 고위험군 경증환자,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렉키로나의 긴급사용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9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88만명, 사망자수는 7만3600명에 달한다. 특히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서는 등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셀트리온은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렉키로나의 중화능력을 확인한 바 있어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실험용 쥐 49마리를 대상으로 렉키로나를 투입한 결과, 약물을 투입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바이러스 역가가 크게 감

소하고, 체중 감소 방어 효과 등 임상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생존율에서도 렉키로나 투여군 생존율은 100%인 반면 대조군 생존율은 0%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사람 치료 용량 대비 낮은 용량 투여 시에도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입증되면서 기대를 높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렉키로나의 글로벌 임상 및 품질 데이터를 통해 효능을 입증해 인도네시아 식약처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렉키로나의 수출 협의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신속한 글로벌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예금보험료율 한도 0.5% 3년 연장

정무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의결

현행 0.5%인 예금보험료율 최고한도가 오는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예보료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예보료율 한도를 0.5% 이내로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예보료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예금자의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예보에 적립해두는 돈을 말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예보료율 상한을 0.5%로 설정하고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 저축은행 0.4% 등 한도를 달리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에 정한 업권별 요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은행은 0.05%, 증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뉴시스

권 0.1%, 저축은행 0.15% 등으로 낮아진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했던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예보료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정부는 저축은행의 부실정리를 위해 27조2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12조2000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예보료율이 낮아지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 공적자금 회수도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